

식품위생 사건백서 II

이철호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부



글_ 신동화 전북대학교 교수 dhsin@chonbuk.ac.kr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철호 교수의 식품학강좌 ‘식품위생사건백서 II’를 냈다. 저자는 그의 서문에서 식품에 관하여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만하다”라고 바꾸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의 이번 저서에서는 최근 일어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부터 불량만두까지 15건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식품위생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사회적 여건 등을 심도 있게 다뤄 빌미가 된 상황을 추적하였고, 관련된 식중독 원인들을 폭 넓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운 다음, 사건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결론에서 사건을 요약하면서 향후 해결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인을 위한 보기 드문 해설서이면서 식품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전문인들에게는 옆에 두고 계속 참고해야 할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전문서이면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할 수 있는 데는 저자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사건들을 보는 제3자로서의 평정심과 치우치지 않는 뚜렷한 사고의 바탕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했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면에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저자의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도 이런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고, 어떤 사건의 경우 일방적으로 제조업자가 크게 피해를 보거나, 언론의 과잉반응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어 식품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건에 따라서는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또 하나 특징은 사건을 평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식품위생 현황과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 그리고 업체의 수용자세 등을 제시해 단순한 사건백서의 차원을 넘어 위생관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침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끝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현황과 대책에서는 폭넓게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황분석을 통하여 21세기 식품안전성관리 방안을 조목조목 예시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관리기관, 그리고 기업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모두 옳은 분석과 방안들이다. 부록으로 제시한 2015년의 ‘똥보세’ 청문회는 세계가 겪고 있는 비만의 문제를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식품에 대한 상식을 넓히기 위하여 옆에 두고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